

‘해양교류’ 속 탄생한 국내 설화와 유적의 내력

보타산(普陀山)은 ‘보타도’라고도 한다. 중국 절강성 주산군도에 있는 불교 성지다. 인근에 있는 ‘락가도’와 더불어 관음 신앙의 두 축을 이룬다. 산스크리트어로는 포탈라카(Potalaka)라 한다. 한자로는 보타락가(補陀落迦)다. 관음보살이 산다는 전설의 산이자 섬이다. 남인도에 설정된 가상의 공간(실제 섬이라고 주장하는 학자도 있음)으로부터 출발한다. 불교 경전 ‘화엄경’에서 선재 동자가 관세음보살을 만나는 장면을 그린 것이 수월관음도(水月觀音圖)이다. 참고로 관음(觀音)은 관세음보살(觀世音菩薩)의 준말로 아미타불의 왼편에서 교화를 돕는 보살이다. 문자 그대로 소리를 볼 수 있는 보살이기에, 열심히 이 이름을 외면 도움을 받게 된다는 신앙이 있다. 우리네 조상들이 ‘관세음보살’을 입에 달고 살았던 이유가 이 신앙의 배경 때문이다. 우리나라 4대 관음 성지로 강원도 양양 낙산사의 흥련암, 남해 보리암, 강화도 보문사, 여수 향일암 등을 든다. 이중 낙산사(洛山寺)는 관음의 성지 보타락가의 낙산(落山)에서 따온 이름이다. 삼국유사에 따르면 의상이 관음을 만나고자 낙산사 동쪽 벼랑에서 27일 동안 기도를 올렸으나 뜻을 이루지 못한다. 좌절감으로 바다에 투신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굴속에서 희미하게 관음이 나타나 여의주와 수정염주(水晶念珠)를 건네 주며 말한다. 내 전신(前身)은 볼 수 없으나 산 위로 수백 걸음 올라가면 대나무 두 그루가 있을 것이니 그곳으로 가라. 이윽고 관음이 사라진 이곳이 원통보전 터이다. 이를 계기로 오봉산을 보타락가산이라 여겨 절 이름을 ‘낙산사’라 지었다는 것이다. 이렇듯 해안에 관음 성지를 두고 있는 것은 불교가 주로 바다를 통해서 유입됐기 때문이다. 어디 불교뿐이겠는



해양 신앙과 제사유적 조사보고서 표지.

가. 고대로 거슬러 오를수록 바닷길을 통한 교류의 맥락이 더 커진다. 중국 보타도의 해안에 대해서는 본 지면에 두어 차례 소개한 바 있다. 보타도의 조음

동(潮音洞)은 낙산사 흥련암과 설화 맥락이 거의 동일하다. 다만 보타락가의 낙산은 낙산사로 형상화됐다고 하더라도 보타산의 형상을 한 장소나 지역이 우리나라에 특정되지 않은 점이 늘 궁금했다. 그러던 차에 지난 3년여 국립해양유산연구소에서 주관한 ‘해양신앙과 제사유적 조사보고서-전라남도 서남해안 연안항로편’ (2024)의 연구 집필에 참여하면서 해남의 보타산 실체를 확인했으므로 이 글을 남겨두고자 한다.

서남해안 연안항로와 해남 보타산에 대한 상상 ‘디지털해남문화대전’에는 보타산 도장사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도장사(道場寺) 이름은 1530년(중종 25)에 펴낸 ‘신증동국여지승람’에는 없지만, 조선 후기 1799년(정조 23)에 펴낸 ‘범우고’와 1872년(고종 9)과 1875년(고종 12) 무렵 간행된 ‘호남읍지’에 도장사(道藏寺)라는 이름으로 실려있다. 이로 미루어 볼 때 도장사는 조선 후기에 창건된 사찰로 보인다. 1949년의 지장 신증탱 현판이나 지장탱 신증탱 화기에서 ‘도장사(道場寺) 로장(藏)자의 한자가 바뀌었다. 1980년대에는 대웅전의 오른쪽 평방 위에 ‘보타산성주사(補陀山聖住寺)’라는 현판이 걸려 있어 한때 성주사(聖住寺)라고도 불렸으나, 어느 시기에 잃어버렸다고 한다. 승려 각안이 1894년 탈고한 고승의 행적을 담은 ‘동사열전(東師悅傳)’의 ‘용파선사전(龍波禪師傳)’에 따르면, 조선 후기에 용파선사가 도장사의 시왕을 도갑사(道岬寺)로 옮겨 봉안하였다는 일화가 있다. 고재철 주지가 1940년대부터 1980년 불사에 화주로 등장한다. 이후 승려 돈성이 8년간 불사를 하고 승려 법두를 거

쳐 지금은 승려 도륜이 주석하고 있다. 2011년에 대웅전과 요사채, 공양간을 신축했다.” 여기 나오는 보타산성주사라는 현판과 뒷산을 보타산이라고 부른다는 점을 주목한다. 지금은 확인되지 않지만 본래 관음 설화와 긴밀한 장소였을 것이라는 뜻이다. 이 점에 동의한다면 보타산의 출처는 훨씬 더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해남 미황사 석주 설화와의 관련성도 살펴볼 수 있다. 석주 설화의 핵심은 배가 석주(石舟), 즉 돌배(石船)라는 점이다. 해안표착형(해안으로 떠밀려 온다는 뜻)이란 점, 불법(佛法)을 전하는 전법선(傳法船)이란 점도 고려 대상이다. 전법선에는 불상, 불경, 불탑 등 사찰 장건과 관련한 불교 보물이 배 안에 가득 실려있기 마련이다. 대개 돌배 이야기는 불상의 땅을 찾아 해안 포구에 도착하는 형식을 취한다. 미황사에 도착한 검은 소 이야기도 다르지 않다. 전법선 외에 관음선(觀音船) 즉 관음 불상을 싣고 도착하는 배의 이야기도 영광 불갑사의 사례처럼 널리 분포돼 있다. 이러한 돌배 이야기는 중국 장강(양쯔강) 하류 항주만과 명주(明州), 주산군도에서 해상항로를 따라 한반도 서남해안에 표착하는 구성을 취한다. 송화섭의 연구를 보면 중국 절강성 보타산의 기념물로 보호받고 있는 돌배를 확인할 수 있다. 민속신앙 쪽에서 이러한 풍경은 영광 안마도 당할머니 이야기처럼 물에 떠밀려 오는 귀작 등으로 바뀌기도 하고 무안군 사도세자당 이야기처럼 실제 역사적 인물에 대입시키기도 한다. 형태야 다르게 나타나지만 모두 해양교류의 배경 속에서 탄생하고 재구성된 설화들이고 유적들이므로 도장사도 해안표착설화와 연관해 살펴야 한다. 해남 보타산을 예사ροι 넘길 수 없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제사유적 해양신앙과 전남의 서남해안 연안항로

남도인문학팁

해남군 황산면 내산길에 위치한 도장사의 뒷산을 ‘호산’ 혹은 ‘보타산’이라 한다. 호산이라는 이름은 윤선도의 후학들이 이곳에서 풍류를 즐기며 ‘호산정’이라는 정자를 지은 데서 유래한다. 하지만 더 거슬러 오르면 중국 관음의 성지 절강성 보타도와 낙가도로 이어지는 서남해안 물길의 교류맥락이 보인다. 관련 해 지난 2018년 ‘하늘 아래 최초의 세계 여행자 문순

덕’이라는 제목으로 본 지면에 소개한 내용이 있다. “일찍이 신라방, 신라소 등의 이름을 통해 알려진 것처럼 우리도 방대한 규모의 집단 이주와 교역을 이행하던 시절이 있었다. 지금까지도 중국의 천주 및 양자강 하류 권역에는 신라의 이름이 많이 남아 있다. 아직 주유소도 신라, 식당도 신라, 길 이름도 신라라는 이름을 쓰는 사례가 많다. 양자강 하구의 주산군도 보타도와 락가도 사이에는 불상 전래와 관련된 신라초(新羅礁)라는 암초가 남아 있다. 신라인들의 배가 얼

마나 많았으면 암초의 이름에 신라를 붙였겠는가. 당대 신라인의 이주와 교류의 규모가 얼마나 컸던 것인가를 알 수 있다.” 불교의 전래뿐만 아니라 교역의 중심에 늘 바닷길이 있었다. 사정이 이러하니 어찌 해남의 보타산을 상고하지 않겠는가. 지난 2019년 본 지면을 통해 소개한 해남의 망부암(亡夫巖)과 고천암 연자각시, 백방산 낙화암 이야기도 모두 유사하다. 이러한 내용을 비롯한 연안항로와 전승되는 옛날이야기 기초자료는 국립해양유산연구소 ‘해양신앙과 제사유적 조사보고서’에 수록돼 2024년 12월 출판됐다. 2019년부터 2021년까지 해양유산연구소 김병근, 김애경, 정태진, 유효균, 김가람 등 연구팀 외에 외부 조

사연구위원 변남주와 내가 함께했다. 해남, 진도, 강진, 장흥, 고흥, 여수, 신안, 영광, 무안, 나주, 영암 등 11개 지역의 연안항로를 추적하고 관련 제사유적을 역사 및 옛이야기(민속)로 접근한 자료다. 아쉬운 것은 조사 기간이 하필 코로나19가 범람한 기간과 겹쳐서 제보자의 접촉 등 현장조사가 극도로 어려웠다는 점이다. 하지만 기왕의 자료들을 최대한 활용하는 등 고군분투했다는 점 부기해둔다. 이 자료는 ‘전라남도 서남해안 연안항로편’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전체의 바닷길과 제사유적을 살피기에 한계가 있다. 장차 ‘서해안 연안항로편’ 및 ‘동해안 연안항로편’ 등으로 확대해 한반도 전체 내력을 정리해 둘 필요가 있다.



← 해남 보타산 도장사 위치와 산이면 청자도요지.



문화재청 문화재전문위원
전남도 문화재전문위원